‘2연승’ 키움, 막강 투타 전력 과시…SSG ‘대포’ 경계령

이번주부터 2021 KBO리그 본격 시작

키움·SSG·두산·KT·LG 개막전 勝

2021 KBO리그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KBO리그는 지난 3일 주말 2연전을 시작으로 시즌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경기씩만 열렸다.

키움은 개막 2연전에서 화끈한 타선과 안정된 마운드를 앞세워 2연승을 올렸다.

개막전에서는 에이스 에릭 요키시가 활약했으며, 타선은 두 경기에서 무려 19개의 안타를 날리며 삼성을 제압했다.

특히, 키움 유격수 김혜성은 메이저리그로 떠난 김하성의 빈 자리를 메우며 8타수 4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키움은 오는 6일부터 고척 홈 3연전을 치른 후 주말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3연전을 치른다.

올해 첫 선을 보인 SSG 랜더스는 지난 4일 개막전에서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보여줬다.

최정과 최주환은 나란히 홈런포 두 방씩을 터뜨리며 5-3 승리를 이끌었다. SSG 선발 아티 르위키 역시 6이닝 2실점 호투로 팀의 창단 첫 승에 기여했다.

SSG는 올해 추신수와 최주환을 영입해 타선을 강화했다. 기존 최정, 제이미 로맥이 이끄는 타선에 추신수와 최주환이 가세해 화끈한 타격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4인방이 버티는 타선은 상대 투수들의 경계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SSG는 주중 3연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주말엔 잠실로 무대를 옮겨 LG 트윈스와 상대한다.

두산 베어스 역시 개막전에서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팀다운 저력을 과시했다.

최고의 외국인 투수 두 명과 최주환, 오재일을 놓쳐 전력이 약화된 두산은 개막전에서 허경민과 박건우의 활약으로 KIA 타이거즈를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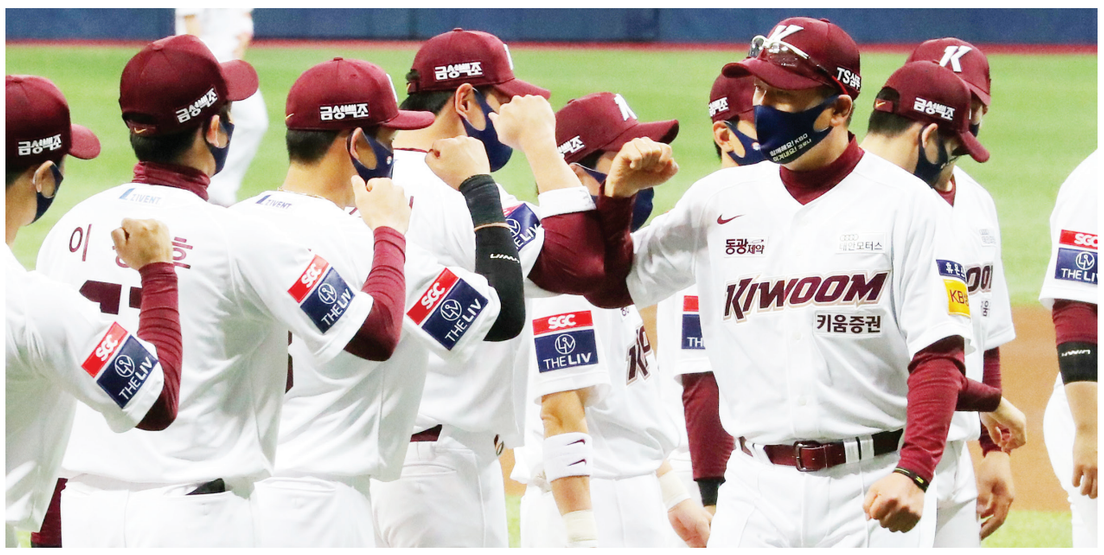
박건우는 결승 3점포를 터뜨리며 두산의 주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두산은 6일부터 안방 잠실구장에서 삼성과 3연전을 치른다. 두산은 주말 3연전에서 올해 시범경기에서 1위에 오른 한화 이글스와 격돌한다.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감을 갖고 있는 KT 위즈 역시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신인왕 소형준은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5⅔이닝 5피안타 7탈삼진 2실점 호투로 승리에 기여했다.

KT는 이미 검증을 마친 원투펀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윌리엄 쿠에바스와 함께 소형준, 배제성, 고영표 등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했다.


홍원기 감독이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KT는 올해 역시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KT는 LG 트윈스와 삼성을 차례로 상대한다.

LG 역시 개막전에서 지난해 통합 우승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짜릿한 1점차 승부를 거둬 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두산에서 LG로 트레이드 된 함덕주는 개막전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행운의 구원승을 올렸다. 간판타자 김현수 역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뉴시스

“싱싱한 어깨 보호…주 1회 등판 고려”

특급신인 KIA 이의리, 케어 프로젝트 가동

특급신인은 관리도 특급으로 받는다. KIA 맷 윌리엄스 감독이 루키 이의리(19)의 싱싱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특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의리는 감격의 개막 엔트리 승선을 넘어 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개막 2연전 2차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스프링캠프서 시속 150km의 묵직한 직구를 앞세워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선발 한 자리를 따냈던 상황. 그러나 3일 개막전이 우천 취소되면서 KBO리그 데뷔전이 연기됐다.

개막전 선발 애런 브룩스가 4일 그대로 등판하며 이의리의 데뷔전이 6일 고척 키움전으로 점쳐졌지만, 사령탑의 계획은 달랐다. 윌리엄스 감독은 “우천 취소로 3일 경기가 없어졌고, 5일은 휴식일이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향후 로테이션을 어떻게 꾸릴지 최종 점검하겠다”며 “2선발부터는 모든 가능성을 볼 생각이다. 아직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윌리엄스 감독이 말한 최종 점검에는 이의리의 등판 간격 조정이 포함돼 있다. 아무리 구위가 좋더라도 고졸신인이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할 순 없는 법. 미래를 내다보고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특급 루키일수록 특급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아마 이의리가 원래대로 4일에 던졌다면 4월 기준 주 1회 등판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스케줄을 검토하겠다”며 “의리가 선발 등판할 때마다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당연히 4일 턴으로 기용할 계획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사령탑이 보는 이의리의 최대 강점은 직구. 이미 두 차례의 시범경기서 무려 삼진 10개를 잡으며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구위를 선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직구 공 끝의 힘이 좋다. 스트라이크존을 지나가는 힘이 남다르다”며 “초반에는 변화구 구사를 어려워했지만, 시범경기를 통해 변화구 제구가 안정됐다. 매 번 좋은 모습을 보여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황의조, PK로 3경기 연속골·10호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활약 중인 황의조(보르도)가 3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보며 10호골 고지를 밟았다.

황의조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벌어진 스트라스부르와의 2020~2021 프랑스 리그앙 31라운드에서 1-3으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터뜨렸다.

이 골로 황의조는 리그에서 3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봤다. 또 시즌 10번째 골로 지난 시즌 프랑스 무대에 진출한 후 처음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보르도는 전반에 내리 3실점하며 0-3으로 끌려가다 파울 바이세와 황의조의 만회골로 추격했지만 끝내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2-3으로 패했다.

SSG·LG 첫 경기부터 드러난 ‘이적생 효과’에 두근두근

‘새 얼굴’ 최주환·함덕주 각각 소속팀에 승리 안겨

출발이 좋다. 이적생들이 첫 경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팀을 설레게 하고 있다.

SSG 랜더스 최주환은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홈 개막전에서 홈런 2개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새 얼굴’ 최주환의 활약에 SSG는 롯데를 5-3으로 누르고 창단 첫 승을 수확했다.

2006년 프로 데뷔 후 줄곧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최주환은 지난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SK 와이번스와 4년 총액 42억원에 계약, 인천에 새 둥지를 틀었다. 팀은 공격과 수비를 두루 갖춘 최주환의 합류로 더 강한 타선과 탄탄한 내야를 꿈꿨다.

시범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했다. 최주환은 새 유니폼을 입고 나선 시범경기에서 16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볼넷 3개를 골라낸 게 전부였다. 이적 첫 시즌에 대한 부담으로 부진이 깊어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우려를 날리는 데는 단 한 경기면 충분했다. 정규시즌에 돌입하자 최주환은 언제 침묵했었냐는 듯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3안타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SSG 랜더스 최주환

LG 트윈스 함덕주

수비도 합격점이었다. 3-2로 앞선 7회초 2사 1, 2루 위기에서 안치홍의 강습타구를 호수비로 막아내며 리드를 지켜냈다.

SSG가 최주환을 택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다.

개막 직전 트레이드로 두산에서 LG 트윈스로 이적한 투수 함덕주도 첫 경기를 기분 좋게 마쳤다.

함덕주도 4일 창원 NC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경기에서 LG맨으로 첫 등판했다. 1⅓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그는 팀이 2-1로 승리하면서 승리까지 따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LG는 개막을 앞둔 지난달 25일 2대2 트레이드로 함덕주를 품었다. 국가대표 출신 좌완 투수에 선발과 구원을 모두 맡을 수 있는 함덕주의 합류로 LG 마운드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기대대로 함덕주는 시즌 첫 경기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100% 수행했다.

재활 중인 차우찬과 선발 합류가 늦어지고 있는 이민호, 임찬규로 선발 로테이션에 고민이 생긴 LG는 함덕주로 위기를 헤쳐나갈 예정이다. 함덕주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다”며 새 팀에서의 활약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스토브리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삼성 라이온즈의 이적생 오재일은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됐다. 복사근 파열로 5주 진단을 받은 그는 5월에야 합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은 FA 시장에서 리그 정상급 수비를 자랑하는 거포 오재일을 영입하며 올 시즌 도약을 꿈꿨지만, ‘오재일 효과’를 누리기까지는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을 더 버텨야 한다.

오재일이 이탈한 삼성은 개막 2연전에서 모두 패하며 무거운 시즌 출발을 알렸다.

무리뉴 감독 “손흥민 왜 패스를…슈팅 했어야” 아쉬움

손흥민 45분간 슈팅 0개

토트넘, 뉴캐슬과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조세 무리뉴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득점 기회에서 슈팅 대신 패스를 한 손흥민(29)의 행동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치러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시즌 EPL 30라운드에서 교체 명단에 올랐다가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돼 약 45분을 소화했다.

지난달 15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뒤 20일 만의 복귀다.

A매치 기간 한일전을 준비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고, 소속팀에 남아 회복에 집중했다.

손흥민은 교체 투입 후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슈팅도 없었다. 결국, 토트넘은 뉴캐슬과 2-2로 비겼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반 33분경 상대 진영에서 볼을 컨트롤한 뒤 슈팅하지 않고 해리 케인에게 패스하다 끊긴 장면을 아쉬워했다.

그는 “손흥민이 거기서 왜 패스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볼을 잡은 뒤 슈팅을 시도해 골을 노려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에서 손흥민은 수비수를 등지고 있어 슈팅을 만들기 어려웠다. 더욱 완벽한 득점 기회를 위해 케인에게 패스를 시도했지만, 정확하지 못했다.

무리뉴 감독은 전체적인 경기력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비겼다. 많은 실수를 했고, 상대에게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전반기보다 경기력이 저하된 것에 대해선 “감독은 같은데, 선수들이 다르지 않냐”고 변명했다.

현지에선 선수 핑계를 대는 무리뉴를 두고 선수단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했다.

뉴시스

손흥민(토트넘)이 4일(현지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후반 출전해 공을 다루고 있다. 지난달 15일 부상 이후 복귀한 손흥민은 의욕적으로 경기장을 누볐으나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고 토트넘은 2-2로 비겼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3위 김세영 “자신감 찾았어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상위권 진입은 김세영에게 자신감이라는 적잖은 소득을 남겼다.

김세영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김세영은 넬리 코다(미국), 펑산산(중국) 등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김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굉장히 플레이가 좋았다. 전반에 버디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영은 전반 9개홀에서 5개의 버디를 쏟아냈다. 김세영은 남은 9개홀에서 버디 2개, 보기 1개로 페이스를 잇지 못하며 공동 3위에 만족했다.

김세영은 “마지막 9개홀에서 조금 더 버디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 괜찮다”고 돌아봤다.

뉴시스